

# 보도자료

이 자료는 11월 15일(금) 조간부터 취급하여  
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 
11월 14일(화) 16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## 제 목 : 「기후변화와 제주경제, 위기인가? 기회인가?」 세미나 개최 결과

□ 한국은행 제주본부(본부장 박구도), 제주상공회의소(회장 양문석), 제주연구원(원장 양덕순)은 11.14일(목) 최근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변화가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「기후변화와 제주경제, 위기인가? 기회인가?」 세미나를 개최

○ 제1주제 : 기후변화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한국의 기후대응 시나리오  
(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이대건 지속가능성장연구팀장)

○ 제2주제 :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경제 효과  
(제주연구원 강영준 연구위원)

### < 자세한 내용은 “붙임” 참조 >

붙 임 : 1. 「기후변화와 제주경제, 위기인가? 기회인가?」 세미나  
주요 내용 1부  
2. (별 첨) 세미나 발표 원문 1부. 끝.

문의처 : 기획금융팀 과장 최중윤, 조사역 김명동

Tel : (064)720-2504, 2503 Fax : (064)720-2521 E-mail : jeju@bok.or.kr

“한국은행 제주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/jeju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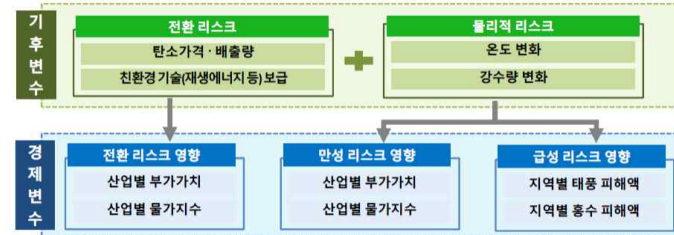
(붙임)

## 「기후변화와 제주경제, 위기인가? 기회인가」 세미나 주요 내용

### [제1주제] 기후변화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: 한국의 기후대응 시나리오

이대건 (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연구팀장)

- (검토배경)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와 그 파급경로를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할 필요
  - \* 기후변화에 무대응 시 210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매년 0.3%p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(분석방법)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①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각 시나리오 상황별로 ②기후변화 리스크가 ③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
  - ① 2024~2100년의 기간 중, 기후정책의 강도, 정책 도입 시기에 따라 4개 경로를 설정
    - \* 정책 도입을 통해 평균온도 상승을 1.5℃(1.5℃대응) 또는 2℃ 이하(2℃대응)로 제한하는 경로, 정책 도입 시기를 2030년 이후로 설정한 경로(자연 대응), 무대응 경로
  - ② 자연재해(급성리스크), 평균온도 상승 등(만성리스크) 기후변화 피해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, 저탄소경제로 전환 과정 속 비용상승 등을 반영한 전환리스크로 구분
  - ③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전환리스크와 만성리스크가 국내 산업 부가가치 및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급성리스크로 인한 태풍·홍수 피해액 증가로 구성



### □ (분석 결과)

- (산업별 부가가치) 기후정책 도입은 초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기후피해 완화에 따른 편익이 증가하며, 업종별로는 건설업, 농업, 식료품업, 음식·숙박업 등이 만성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, 정유·화학·시멘트·철강 등은 전환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취약
- (산업별 생산자물가) 농업, 식료품업, 음식점업의 경우 1.5℃대응 보다 무대응 또는 자연대응 시 생산자물가가 더 높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농산물 공급충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2080년 이후 상승률이 크게 확대
- (태풍·홍수 피해) 피해규모의 경우 제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, 전남, 경남은 태풍, 경기, 충북, 강원은 홍수 피해액이 클 것으로 예상
- (제주지역 영향) 제주지역은 물리적 리스크 취약 산업(농업, 식료품업, 음식·숙박업, 건설업)의 비중(32.7%)이 전국 평균(18.7%) 대비 높아 탄소저감 노력이 지연될 경우 물리적 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가능성

## [제2주제]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경제 효과

강영준 (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장)

(참고)

## 「기후변화와 제주경제, 위기인가? 기회인가?」 세미나 개요

- **(제주 에너지대전환의 목표)** 2035년까지 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7GW 이상 보급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70% 이상 달성, ② 그린수소 연 6만톤 이상 생산, ③ 기저발전원을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로 전환, ④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474만톤 상쇄를 목표로 하는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였음(2024.05.)
  - 이를 통해 발전, 수송, 사업, 생활 등 모든 영역에 대하여 무탄소사회로의 진입을 도모
- **(제주 에너지대전환의 의의)** 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, ② 청정에너지 산업의 육성, ③ 중앙집중식 발전설비의 탄소중립 전환, ④ 생활 전(全)영역으로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의 새로운 에너지전환 비전과 전략을 제시
  - 기존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하고, 수소경제를 도입하여 출력제한 문제와 협소한 에너지 산업분야를 확대
- **(지역경제 효과)** 제주 에너지대전환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2024~2035년까지의 제주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사회적 후생을 추계
  - 제주 에너지대전환 시나리오는 추진 주체를 ① 제주 단독, ② 정부 협력으로 구분하였고, 추진 목표를 ①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0%-그린수소 생산 30%, ②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80%-그린수소 생산 20%로 구분하여,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
  - **(생산유발효과)** 2024~2035년까지 25조 1,930억원에서 31조 9,350억원으로 산출
  - **(부가가치유발효과)** 2024~2035년까지 10조 2,690억원에서 13조 230억원으로 산출
  - **(취업유발효과)** 2024~2035년까지 116,524명에서 147,730명으로 산출
  - **(사회적 후생)** 온실가스 저감으로 2024~2035년까지 5,708억원의 사회적 후생 발생
- **(지역경제 효과 시사점)**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제주의 1년 산출액에 맞먹는 수준으로 크지만,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전체 투자액의 50%가 배정되어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
  - 적극적인 정부 건의를 통해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국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시키고, 이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
  - 제주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파급되는 규모도 크게 나타나므로, 정부 설득을 위한 근거로 제시

- 일 시 : 2024.11.14일(목) 15:00~17:00
- 장 소 : 메종 글래드 제주 2층 제이드홀
- 주 제 : 기후변화와 제주경제, 위기인가? 기회인가?
- 개 회 사 : 박구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
- 환 영 사 :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
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
- 축 사 :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
- 발 표 자
  - 제1주제 : 기후변화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: 한국의 기후대응 시나리오 (발표 :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이대건 지속가능성장연구팀장)
  - 제2주제 : 제주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경제효과 (발표 : 제주연구원 강영준 혁신경제연구부장)
- 토론진행
  - 사회자 : 강기춘 교수 (제주대학교)
  - 토론자 : 고윤성 과장 (제주특별자치도청)  
(가나다순) 문일주 교수 (제주대학교)  
손병수 센터장 (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)  
정태용 교수 (연세대학교)
- 주 최 : 한국은행 제주본부, 제주상공회의소, 제주연구원